

WIZARD BAKERY



위험한 소원이 이루어 지는 곳

8111

# 위저드 베이커리

제2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2016 서울문화재단 선정 청소년 관람 권장공연

오만  
시단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 제작 & 출연진

---

원 작            구병모  
각 색            김한울  
출 연           류기범 남세린

서현재 전형근

서지윤 허운영

이효주 박인옥

이대은 박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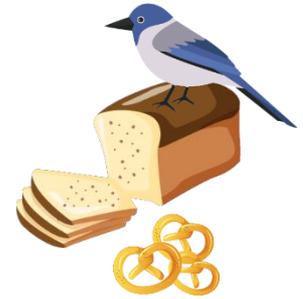
주최/주관      올씨어터 컴퍼니

---





# 위저드 베이커리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싸 줄 치유적인 스토리  
제빵사는 사실 마법사!  
흥미로운 판타지적 요소

베스트 셀러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청소년 성장 드라마 장르



이만  
서단완  
재단  
창립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선정  
제2회 청소년 관람 권장공연



창비

2016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 원작 소개

구병모의 장편 소설 <위저드 베이커리>는, 평단과 독자 양측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주목받는 성장소설로 우뚝 섰던 김려령의 <완득이>에 이어 '제 2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의 행운을 거머쥔 수상작이다. 방향하는 십대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전회 수상작인 <완득이>를, 판타지를 기본 바탕으로 뒀다는 점에서는 팀보울러의 <리버보이>를 떠올리게 하지만, <위저드 베이커리>는 <완득이>보다는 무겁고 <리버보이>보다는 어둡다. 그러나 이 불편한 판타지는 우리 삶의 숨겨진 이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작품이다.



# 기획 의도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마법의 빵집  
'위저드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신비한 힘을 가진 마법의 빵을 만드는 마법사와  
가장 친밀한 대상인 가족에게서  
상처입고 방황하는 소년, 그리고 마법의 빵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중산층 가정의  
어두운 속내와 현대인들의 뒤틀린 욕망에 대해  
폭로한다.  
판타지와 미스터리, 호러의 요소가 적절히 뒤섞인  
흡입력있는 이야기는  
탄탄한 구성과 맛물려 한순간 관객들을 섬뜩하게 만든다.



1

누구나 꺾게 마련인 사춘기 소년의 고민과 방향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어 청소년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

2

가지각색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워저드 베이커리를 찾는 손님들의 사연을 통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적인 주제를 전달한다

3

인간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어둠과 공포를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판타지로 변주하였다



# 워저드 베이커리 특별한 이유

온 가족이 좋아 하는 따뜻한 성장 연극





## 줄거리

위저드 베이커리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다양한 빵을 판매하는 마법의 빵집이다  
이곳에서 마법의 빵을 직접 만드는 점장과 12시면 파랑새로 변하는 신비한 점원이 손님들을 맞이한다

빵집의 단골인 소년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재혼한 아버지와 새어머니, 의붓여동생과 살게된다.  
무관심한 아버지, 신경질적인 새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던 소년은  
곰뻍한 누명까지 쓰게 되자 집에서 쫓기듯 뛰쳐나온다.

급한 마음에 뛰어든 동네의 빵집 '위저드 베이커리'에 숨은 소년.

소년은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일하면서 현실적 욕망에 눈이 먼 의뢰인들과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빵을 만들어 파는 점장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목격한다.

마법의 빵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점장과 의뢰인들,  
그리고 소년과 그의 가족이 놀라운 비밀들이 밝혀지는데...

# 등장인물

## 소년

“ 날 그냥 ... 내버려 두면 안될까? “

재혼 가정의 가솔소년. 어릴 시절 부터 말을 더듬었다. 새엄마와 갈등을 빚는다. 어느날 가족에게 심각한 오해를 받고 집을 떠나, 워저드 베이커리에 숨어 지낸다

뒤에에 몰아 지낸다

## 점장

“ 명심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아니야 “

시니컬하고 미스터리한 인물 마법의 빵을 만들어 파는 신비한 존재. 손님한테 의뢰를 받은 빵을 직접 만든다. 과거에 저지는 실수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꾀다.

다 저지를 뚫다

## 파랑새

“이별은 지긋지긋 해 “

밤에는 파랑새로 변하는 귀엽고 친절한 소녀 베이커리에 경리와 굿은 일을 도 맡아 하며 소년에게 호감을 갖는다. 이사를 가게되면 모든 흔적들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별을 슬퍼한다.

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별을 슬퍼한다



## 멀티(남)

아빠, 경찰, 학원강사 등

## 멀티(여)

배선생, 몽마. 의뢰인 등

소년



전영근

서현재



점장



류기범

남세린

멀티남



박범기

이대은

파랑새



서지윤

어윤영

멀티여



박인옥

이효주



#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이 명제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다  
모든 선택의 결과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물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가?  
짝사랑 하는 상대를 쟁취하고 싶은가?

워저드 베이커리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빵을 팔고 있다



## 체인 월넛 프레첼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먹이세요.

체질에 따라 유효 시간이 다르지만 평균 48시간 동안  
당신에게서 눈을 땔 수 없고 마음이 끌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극히 호감을 갖게 된 상대를  
어떻게 요리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당신의 몫!  
여기서 사랑을 쟁취하는 데 성공하면  
사슬처럼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인연을 갖게 됩니다.



## Fantasy & Mystery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한 점장과 파랑새로 변하는 점원이 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빵이 화려한 조명과 신비한 무대에서 만들어 진다  
소년도 모르고 있던 가족의 미스터리한 비밀은 공연이 끝나는 순간까지 풀리지 않는다

## Comic & Parody

짜릿 무거워 질수 있는 주제를  
친숙한 제과점에서 코믹하게 표현한다  
관객의 참여를 유도할 때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다  
옛일을 회상하거나 추억할수 있는  
패러디를극에 녹였다



시간을 되감는다는 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냐....

## 쿠키 타임 리와인더

“ 워저드 베이커리 궁극의 아이템  
그저 평범한 포순 쿠키 아니냐구요?  
천만의 말씀.

무려 시간을 되돌리는 쿠키 랍니다.

쿠키를 반드시 입안에 넣고  
간절히 되돌리고 싶은 과거의 시간을  
상상 하며 부숩 주세요.  
입안에 넣고 살살 녹이면,  
소원 하는 시간으로 뿡!





“

네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라면...  
그리고 너한테는 하나 더 추가하지.

네가 저지른 일의 무게만큼  
악몽을 꾸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거다.

잊을 만하면 꿈속에  
그 애가 찾아올 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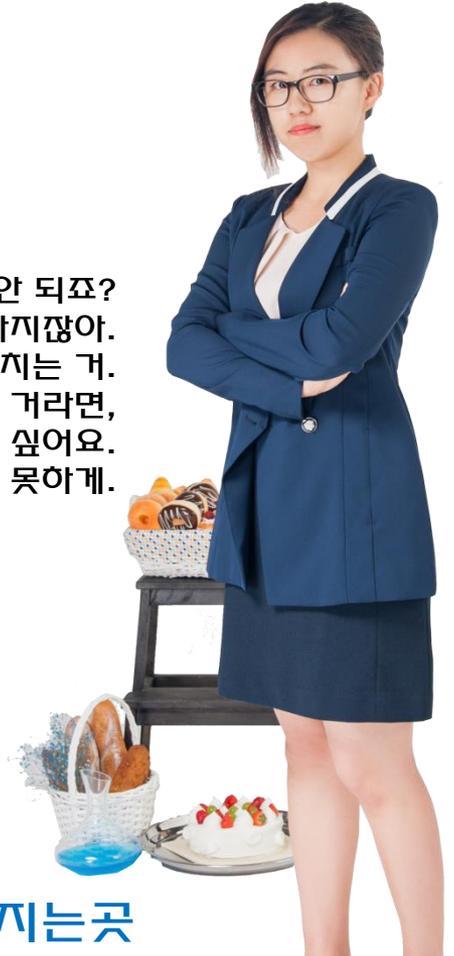
---

피한다고 해결 되는 건 없다  
선택하고 책임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 시험 전날 주문을 외우고 **그걸** 먹었어요.  
그냥 맨날 성적이 앞서는  
그 애가 알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 했는데....

“ 어째서 안 되죠?  
어차피 당신네들도 마찬가지잖아.  
사람 몸과 마음에 장난치는 거.  
한때 잠깐 눈이 멀어 그 자식을 고른 거라면,  
이제 그 자식의 눈을 멀게 해주고 싶어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게.



위험한 소원이 이루어 지는곳  
[위저드 베이커리]



20대인 친구들과 베이커리란 맛있는 제목에 끌려 보게된 워저드 베이커리 도착해서 티켓을 받았을 때 어린 연령층이 많아서 우리끼리 이거 애들 보는 건가봐... 하고 걱정했는데 유지할 만한 내용도 아닐 뿐더러 배우님들의 연기도 훌륭하고 살짝씩 터지는 유머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생기고 이쁜 배우님들 덕에 눈오강도 제대로 했구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보고싶어요  
By jeongd\*\*

지난 22일 친구와 5시 연극 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ㅇㅇ  
대학로에서 두번째로 본 연극이었는데 배우분들이 연기도 정말 잘하시고 관람석까지 와서 말도 걸어주셔서 좋았어요.  
저한테 감자라고 하셨는데 남자주인공 정재용분이 감자애기 후기에 꼭 남겨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당ㅋㅋㅋ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점장과 학생이 맞서는 부분이었는데  
모든 선택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대사가 많은 생각을 들게 했어요.  
By 365yls\*\*

오랜만에 재밌고 흥미로운 연극봐서 좋았습니다~제목만 봤을 땐 유지할 것만 같았는데 막상 연극을 보니 심오하면서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그 메시지를 알고 나니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By bysAviOr0\*\*\*

원작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보긴했지만 연극만으로 어떤내용인지 쉽게 알수 있었어요  
어느정도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내용인데 배우분들 연기력이 좋아서 그런지 몰입도 잘되고 재밌었어요  
주연에 소년역할 하신분 연기 잘하시네요 진지하고 우울한 부분을 소화 잘하시네요 원래 그런성격 아니시죠?  
파랑새님 께 넘치시네요 파랑새역할 이랑 잘 맞을 정도로 잘하시네요  
점장님 명연 잘쓰도록할게요 (눈물~ 귀한마법재료~)  
By wjdbscj\*\*\*





# Thank You

올씨어터 컴퍼니 / 017-437-3639 / 1666-1318 /  
dod2008@hanmail.net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78